

## 라틴아메리카 속의 한국·한국인

### ■ 브라질 해방신학자 성정모

김 항 섭



브라질 해방신학자 성정모

성정모(Jung Mo Sung) 교수는 1970년대와 80년대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레오나르도 보프 등 해방신학 1세대를 잇는, 가장 유력한 2세대 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 교수는 현재 상파울루 감리교대학교(UMESP) 대학원 종교학과 주임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필자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다.

필자가 처음 브라질 유학을 결심했을 때, 그곳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이 거의 없어 참으로 막막했다. 그런데 신학대 입학허가서와 함께 동봉되어온 대학편람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름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브라질에 도착해서도, 비록 그의 한국말이 서툴렀기 때문에 필자로서는 서툴 수밖에 없는 포르투갈어로 소통을 해야 했지만,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성 교수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우리 나이로 10살 때 가톨릭교회에서 조직한 브라질 이민선을 탄 가족을 따라, 낯선 브라질 땅에 도착했고, 이른바 이민 1.5세대로서 ‘경계인’의 삶을

시작했다. 성 교수는 부모의 교육방침에 따라 가능한 한 브라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낯선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한국말을 사용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면서 한국말을 잃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브라질 한인성당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놓치는 않았다. 성 교수는 상파울루대학교(USP)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3학년 때 중퇴하고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대에 다시 입학했다. 그러나 역시 3학년 때 사제의 길을 포기했으나 평신도로서 신학 공부를 계속했고, 외채 문제에 대한 신학적 비판으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러한 신학적 논의는 60년대부터 프란츠 힌켈라메르트(Franz Hinkelammert), 우고 아스만(Hugo Assman) 등이 주도해 온 이른바 경제신학적 맥락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제신학은 해방신학의 한 흐름으로서, 경제학과 신학의 학제적 대화를 통해 주로 자본주의 문명, 더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성 교수는 이러한 경제신학적 논의를 상파울루 감리교대에서 훌리오 데 산타 아나(Júlio de Santa Ana)의 지도 아래 더 심화시켰다. 그의 박사 논문은 해방신학 내부에서 이뤄진 해방신학 비판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주장인즉, 해방신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초기에는 종속이론에 기반을 두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현실에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신학적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경제 문제를 도외시함으로써, 유토피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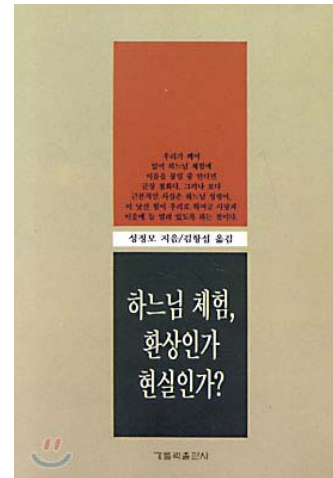
성 교수는 이후 상파울루 감리교대학교, 상파울루 가톨릭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톨릭교회의 기초공동체나 민중 사목

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진보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도 노동자당(PT)에 적극 참여하였고, 상파울루 시당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성서적 계시가 인간 교육과 관련 있고, 기술 혁명과 더불어 교육 문제가 중요한 경제적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하에, 피라시카 감리교대학교(Unimep)에서 우고 아스만 교수의 지도 아래 교육학 포스닥 과정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이론적·실천적 편력에서, 성 교수는 우고 아스만, 프란츠 힌켈라메르트, 홀리오 데 산타 아나, 엔리케 두셀, 후안 루이스 세군도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르네 지라르, 칼 마르크스, 에드가 모랭(Edgar Morin) 등과 대화하면서, 신학-경제-교육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오고 있다.



성정모 교수는 지금까지 13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 중 일부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영어로 번역되었다. 국내에 번역된 것은 필자가 번역한 『하느님 체험, 환상인가 현실인가?』(가톨릭출판사, 1994), 『인정 없는 경제와 하느님: 복음화에 도전하는 가난과 신자유주의』(가톨릭출판사, 1995) 외에, 『욕구와 시장, 그리고 신학』(홍인식 옮김, 일원서각, 2000)이 있다. 그밖에 수많은 논문을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로 발표했고, 국내에도 몇 편의 논문과 그의 저작에 관한 서평이 나온 바 있다. 그는 현재 독일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리거(Joerg Rieger) 교





세미나에서 필자와 함께 자리를 한 성정모 교수

수, 아르헨티나의 미게스(Nestor Miguez) 교수와 함께 『제국의 영혼』(O Espírito do Império)이라는 책을 공동집필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론적 작업 못지않게, 민중사목단체나 사회운동단체들의 초청으로 강의, 강

연 등 왕성한 실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활동 범위는 브라질의 전 지역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지역(쿠바,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볼리비아, 페루 등)을 넘어 유럽과 미주 지역(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에까지 걸쳐 있다.

그는 브라질 여성(Lindamir Sung)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브라질 국적을 취득해 귀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여전히 간직해 왔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자의식이나 정체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탈식민지 이론이나 복합성 이론 등을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비디오를 시청하는 등 한국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 사이의 ‘경계인’ 으로서의 삶을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민자가 되는 것은 우리 세계가 아닌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모든 곳에서 이방인임을 느끼는 것이며, 심지어 과거에 자신이 떠나온 조국을 방문하거나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역시 이방인임을 느끼는 것이다.” 1998년 3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자리,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바랐던 곳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민자로서의 경험은 자신의 사고방식, 이론적 작업 형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사이의 차이를 깨닫고 문화적 상대성을 이해할 기회가 되었다. 그러한 경험에 바탕을 두면서, 그는 이론 또는 학문 사이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신학, 경제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들을 넘나드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

김항섭 - 브라질 상파울루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생태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리신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지은 책으로는 『생태학의 도전과 그리스도교』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생태 신학』, 『하느님 체험, 환상인가 현실인가?』, 『인정 없는 경제와 하느님』 등이 있다.

---